

레트로를 다시 보면

새롭게 돌아오는 어떤 그리움이 있다

레트로(Retro)가 ‘감성’이라는 키워드로 인기를 끌고 있다. 누군가에게 향수로 느껴지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흥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New’와 ‘Retro’를 합친 신조어인 ‘뉴트로(Newtro)’의 등장이다.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뉴트로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색다른 스타일이 됐다.

김태윤·양수현 기자 press@



- 1 필름 감도에 맞춰 카메라를 설정한다.
- 2 노출계를 확인하며 셔터스피드를 조정한다.
- 3 뷰파인더를 보며 초점을 맞춘다.
- 4 “찰칵”.

필름사진을 확인하려면 약품처리를 통해 필름에 맺힌 상을 고정하는 ‘현상’ 작업이 필수다. 그 후 현상된 필름을 인화지에 출력하는 것을 ‘인화’,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을 ‘스캔’이라 한다.

찰나를 정확히 기록하는 방법

충무로 골목에 있는 고래사진관에서 스캔을 직접 해볼 수 있다. 파란 고래가 그려진 좁은 계단을 올라 가게에 들어서면 가지런히 진열된 필름과 카메라들이 반긴다.

다. 자리마다 모니터와 스캐너가 비치된 ‘셀프 스캔 존’도 있다. 직원에게 가져온 필름을 맡기고 현상을 기다리며 원하는 스캐너를 선택한다. 각각의 스캐너는 색 표

현 방식과 스캔 소요 시간이 다르다. 현상이 끝나면 필름을 스캔하고 모니터로 이미지를 확인한다. 색상과 노출을 조절하며 스스로 보정할 수 있다.



고래사진관에는 카메라와 필름들이 진열돼 있다.



직원이 셀프 스캔 존의 컴퓨터를 확인하고 있다.

고래사진관 윤푸빛 사장에게 셀프 스캔 서비스는 ‘모토의 산물’이다. ‘사람들의 콘텐츠를 더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윤 사장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을 당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색을 보며 찍었는지를 떠올리면서 직접 스캔하고 보정한다면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의도를 설명했다. 스캔된 사진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역시 셀프 스캔만의 장점이다.

두 달 전쯤 처음 필름카메라를 접한 김현지(여·25) 씨는 “여행지에서 필름 사진을 찍고 나면 현상소에서 스캔을 마쳐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행이 끝나도 여행이 계속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필름카메라에서는 스마트폰과는 다른 느낌의 미학을 찾을 수 있다. 박하연(여·27) 씨는 “필름카메라는 결과물을 받아볼 때까지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점이 설렌다”고 말했다.



필름을 스캔하면 옆의 모니터를 보며 바로 보정할 수 있다.

- 1 카트리지 바늘이 LP판 표면에 V자형으로 파인 미세한 골을 긁고 지나간다.
- 2 소리는 앰프를 거쳐 더욱 커진다.
- 3 앰프에서 증폭된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귀로 들어오게 된다.



바늘로 일구는 추억의 소리



외국인 손님이 혼자 여유롭게 음악을 즐긴다.



손님들이 책장 속 LP를 하나씩 꺼내 본다.

고래사진관에서 버스로 15분, 인사동 LP 카페 뮤직컴플렉스 서울을 찾을 수 있다. 카페 입구에서부터 빨간빛으로 꾸며진 내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수많은 LP가 매장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그 앞의 자신만의 방식으로 앨범을 찾는 사람들로 붐빈다. 인터넷

에 ‘레트로 카페’를 검색해서 찾아온 정진아(여·16) 양은 “평소에 오아시스, 린,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등의 음악을 좋아해 이들의 음악을 LP로 들어보기 위해 찾았다”고 말했다. 모든 좌석에는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있다. 턴테이블이 돌기 시작하며 나오는 ‘지지

직’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뮤직컴플렉스 서울 김형석 대표는 “귀를 찌르는 초고역대를 너무 잘 표현하는 디지털 음원과 달리, LP는 담을 수 있는 소리의 깊이에 한계가 있어 오히려 그 속에 녹아드는 편안함이 있다”고 전했다.



리휴뮤직갤러리에는 8만여 장의 LP들이 있다.

성북동 리휴뮤직갤러리에 들어 서면 양 벽면을 가득 채운 8만여 장의 LP들이 자아내는 웅장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스피커들 사이에서 보랏빛을 뿜어내는 진공관은 이곳의 자랑이다. 진공관 속 필라멘트에 열이 가해질수록 깊은 소리가 난다. 관계자 A씨는 “디지털 음원 파일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똑같은 소리라면 LP는 진공관의 상태, 필라멘트의 소모 정도, 그날의 습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라며 “이런 점이 레트로 감성”이라고 전했다.



손님들이 리휴뮤직갤러리의 홀에 앉아 음악에 집중하고 있다.